

스티븐 홀 작품에 나타난 현상학적 빛과 물의 공간작용

A Study on the Spatial effect of Phenomenological Light and Water in Architectural works of Steven Holl

안우진* / Ahn, Woo-Jin

손광호** / Son, Kwang-Ho

고성룡*** / Koh, Seong-Lyong

Abstract

The tendency of formalizatio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deeply relies on the thought of Western Philosophy, which emphasizes the art of image perceived visually but ignores the body and perception of a human being who uses the architecture and lives in it. On the contrary, Merleau-Ponty asserted long time ago that the world and the body are inseparably related to each other. The phenomenology is important in Architecture, since the center of thought should be taken back to the human body if a artistic meaning can be obtained by Architectur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meaning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can be renewed by the phenomenological idea of Merleau-Ponty as a means of expanding thought that overcomes the limit of formalizatio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This research aims to learn from Steven Holl's work, and show the Architectural elements that are used for perceptual experience of phenomenon and the function of those elements in Architectural space of his works. The result of study on about the phenomenal light and water in Architectural space of Steven Holl is as follows;

First, in perceptual experience of phenomenon, time is an important element, which is successive and make a field that cause perceptual experience.

Second, light, as a phenomenological element, acted as a means of expressing the comparison and change of light and shadow in Architectural space and showing the change of color by the diversity of time in inner space.

Third, water, as a phenomenal lens, not only acted functional but also functioned as an element of sensual experience in Architectural space. It acted as an image containing time, space, just like a mirror that reflect the environment.

키워드 : 스티븐 홀, 현상학, 빛과 물의 작용

1. 서론

현대건축에 나타난 시각적 형태화의 경향은 서구의 사상과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근대이후 현대까지 계속된 건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건축은 눈으로 현상되는 고정된 이미지의 예술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¹⁾ 반면, 건축을 직접 이용하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신체와 감각을 점점 멀리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간과 건축과의 괴리는 서구의 사고방식인 객관적 사고와 경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에 의

문을 제기했던 메를로 폰티²⁾는 오래 전에 인간신체와 지각 경험과의 관계를 탐구한 철학자로서 세계와 신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신체를 중심으로 사물을 보아야 한다는 현상적인 접근을 주장³⁾했다. 현상학적 철학이 건축에 기

1) Juhani Pallasmaa, Questions of Perception, An Architecture of the Seven Senses, A+U, 1994. p.29.

2) 메를로 폰티(1908~1961)는 프랑스 철학자이다. 인식대상이 항구불변하는 객관적 세계보다 직관적 세계의 선경험성을 중시하는 현상학을 탐구했다.

3) 메를로 폰티에게서 신체는 세계와 상관적 관계이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중재자이다. 지각한다는 것은 사물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사물이 의식적으로 인식되기 이전부터 이미 실재해왔다. 그러므로 현상학의 목표는 사물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인식이전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다. 사물의 물적인 실재는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오직 감각을 통해서만 경험되며, 신체에 의해 축적된다. 그러므로 가시적인 것과 눈에 보여지는 것의 근거로서 신체의 중요성은 현상학의 근본을 이루는 요건이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정회원,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이사,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정회원,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정교수, 공학박사

여한 것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만이 사물의 참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건축이 창조적인 예술로서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학습된 언어의 틀을 극복할 때만 진정한 의미가 나타난다고 했다. 즉, 창조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중심을 인간의 신체로 회복하여 다시 생각할 것을 메를로 폰티는 주장⁴⁾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건축의 사고에 깔린 객관적이며 물리적인 경향은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간에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공간의 표현을 인간의 체험과는 관계없이 사물간의 관계 표현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 지각의 문제도 객관적으로 수량화하는 문제만을 다루었고, 인간의 다양한 지각체험 근원과 과정은 밝히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⁵⁾ 지각체험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간의 체험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현상학은 건축이 가진 객관적이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체험의 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지각 체험을 극대화하는 사고를 전개하는 수단으로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적 사고를 근간으로 건축 작업을 수행하는 건축가의 사고와 작품을 탐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건축가로서 스티븐 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설계한 건축 작품에서 현상학적 지각체험을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건축 요소를 사용했으며, 그 요소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이후 서구 예술의 기반으로서 객관적, 경험적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고로서 현상학적 접근 방식을 고찰하며, 현상학과 건축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을 기반으로 건축작업을 하는 현대건축가 중 스티븐 홀을 예로 들어, 현상학적 계획과정과 지각 체험을 유발하는 건축요소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스티븐 홀이 설계한 건물의 사례분석을 통해 지각체험 요소인 현상학적 빛과 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이 공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여 결론을 유도한다.

2. 현상학과 현대건축의 관계

2.1. 현상학의 의미와 전개

(1) 현상학의 의미

현상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후설은 가시적인 현상을 평가절하 해온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의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물자체로 돌아가는 것'을 현

상학이라고 했다. 즉 현상학은 본질을 서술하는 것이고, 일체의 문제는 결국 본질을 정의하는 일에 귀착하는 것이다.⁶⁾ 이를테면 지각의 본질이거나 의식의 본질이다. 또한 현상학은 본질을 존재로 돌려놓는 철학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과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사실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현상학은 세계와 어떤 직접적이고 소박한 접촉을 재달성하려고 노력하며, 결국 이러한 접촉은 하나의 철학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 목적은 살아있는 공간이나 시간과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현상학의 핵심적이 성격은 종래의 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의 경향이 기계론의 요소주의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철저한 반성을 가하고자 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⁷⁾ 그러므로, 현상학은 단순한 철학상의 한 사조가 아니라 우리시대의 과학, 특히 인간과학의 여러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운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후설은 만년에 사실성에 대해 많이 치우치면서 생활세계의 학(學)으로서 현상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생활세계란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으며 행동하는 곳이라고 전제하는 세계로서, 인간은 이 환경을 뛰어 넘을 수 없다. 객관적인 과학 태도로 세상을 파악할 때, 과학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믿으려 하지만, 생활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상학은 이 같은 객관적 과학적 태도에 우선 판단중지를 가하고 있다.⁸⁾ 그리고 후설의 사고는 프랑스의 메를로 폰티에 이르러 더욱 계승·확장되었으며, 인간의 지각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2) 메를로 폰티의 지각의 현상학

그의 저서인 '지각의 현상학'에서 지각은 인간의 반성을 위한 근거가 되며 세계 속에 포함되어 그 부분을 이루고, 신체는 바로 지각의 근거가 된다. 그는 자아와 타자, 즉자와·대자의 분리를 거부하고 하나의 총체로 파악했으며, 개념화되지 않은 지각은 세계를 보고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띤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철학자의 절대적 지식은 지각이다.'⁹⁾라고 말했다. 그는 '최초의 철학적 행위는 객관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세계에 도달하여 그 현상을 재발견해서 지각을 다시 일깨워 위장된 가면을 벗겨버리는 일이 된다.'¹⁰⁾고 했다. 지각은 사물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물의 존재에 대한 의식적 인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체는 하나의 주체로서 움직이며 지각의 중심이 되고, 지각된 것으로서 행동하며,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하나의 창조적 구조로 움직인다. 하지만 우리가 지각할 때 세계에 대한 개념화의 형태나, 반성적인 파악이 있기 이전에 세계는 이미 저기에 있고 그 자체로 지각되

6)박상규, 미학과 현상학, 예술출판사, 1991, p.189.

7)Ibid, 1991, p.190.

8)Ibid, 1991, p.191.

9)김형효, 메를로 뵈티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p.97.

10)박상규, 미학과 현상학, 예술출판사, 1991, p.193.

4)각주 3참조

5)김형효, 메를로 뵈티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p.93.

며 인체에 의해 기록된다. 그래서, 현상학의 목표인 실재를 직접 파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에 따르면 존재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조상의 형태를 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한 의식, 가시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의 근거로서 신체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그리고 역사적 시간을 초월한 언어가 하나의 복합체로 보는 그의 관점은 철학과 예술을 관계를 맺게 했다.

2.2.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에서 의미획득 과정과 공간개념

(1) 의미의 획득 과정

메를로 폰티는 대상물을 가시적이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그 대상물 자체가 아니라, 자신과 다른 대상물간의 비가시적 다름이라고 했다. 지각성과 의미는 사물들간에 존재하는 틈에서 발생하는데, 그는 이것을 '침묵'이라고 불렀으며, 침묵으로부터 의미가 비롯된다.¹¹⁾ 침묵은 비가시적 배경으로서 의미를 드러나게 하며, 사물을 보이게 하는 다름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인 것이다.¹²⁾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의 의미는 단순히 기존에 정의된 사인(sign)의 선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침묵을 통해서만 기존의 낱말들 주변을 더듬어 이전의 표현들보다 인도되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침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언어의 영역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침묵이 일상언어의 틀 내에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성공적인 표현은, 즉 우리가 침묵에 다가가서 어떤 의미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야생적 존재의 한 측면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야생적 존재의 근본정신을 드러내기 위해 메를로 폰티는 '살려진' 신체를 자신의 새로운 존재론의 출발점과 패러다임으로 취하고 있다. 그는 신체를 야생적 존재의 모형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신체를 통해 우리는 사물의 살려진 경험, 즉 현상학적 경험에 도달할 수 있다.

(2) 메를로 폰티의 공간개념

고대 회랍 철학 이래 공간은 철학의 주요문제였다. 공간의 철학적 고찰은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지만, 자연과학의 급속한 발달로 공간의 문제는 수학적 측면과 실험적 탐구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등장에 따라 공간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¹³⁾ 하지만 하이데거, 메를로 폰티, 샤르트르와 같은 현상학자는 기존 객관적 공간의 우위와 궁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공간은 전통적으로 경험의 대상을 담은 용기 혹은 모든 사물의 공통의 추상적 성질로 규정되었다. 칸트가 말한 공간은 사물과 사물사이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은 사물의 정

림이 가능한 수단', '사물을 관계짓는 보편적인 힘'이라고 했다. 반면 경험주의자들은 공간을 '모든 사물이 잠겨 있는 일종의 에테르', '사물들이 배치되는 무대'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공간개념들은 근대를 전후한 서양건축의 공간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은 투시도에서도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메를로 폰티는 위의 양자를 부정하는 제3의 공간성을 찾았는데, 상하, 깊이, 운동과 같은 공간적 관계들의 특성을 하나씩 신체적 현존의 관점에서 규명했다. 그는 경험주의적 설명이나 객관주의적 설명만으로는 나의 현실적 내용을 그 자체로 정위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물리학적, 기하학 공간과 다른 시원적이고 원초적인 공간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메를로 폰티는 이러한 공간을 '자연적 공간'이라 불렀으며, 공간적 수준의 개념과 공간지각의 주체로서 신체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¹⁴⁾ 결국, 우리의 공간지각에 대한 메를로 폰티의 현상학적 기술의 결과들은 객관적 세계로부터 선객관적 경험과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객관적 사고에 앞서 존재하는 근원적인 현상, 즉 체험할 때 주어지는 현상을 그대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현상학적 지각방법

메를로 폰티가 말한 지각은 단순한 병렬적인 집합이 아니라 그림과 배경의 구조를 갖고 있는 통일된 의미의 장이다.¹⁵⁾ 즉 우리가 가진 오감들이 상호교류를 하면서 통일된 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 그 밖의 많은 감정이나 감각들이 어울린 구조화된 전체이다.¹⁶⁾ 메를로 폰티는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지평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대상을 보는 중에 우리가 주위환경의 세세한 것에 눈을 돌리면 이런 부분은 생동감 있게 나타나고 전개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주변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지평 개념에 의해 확보된 대상의 동일성은 연속적으로 느껴지는 대상이 된다. 결국, 우리의 자연적인 지각 형태는 요소 심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각각 요소들이 절대적 가치에 도달하는 분석적 지각을 나중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형태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메를로 폰티는 인상과 회화이론을 예를 들면서 이러한 현상학적 지각방식을 설명하였다. 조명의 변화에 따라 대상의 일정한 특성이 설명되고 실제 색이 추론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빛이 조명으로 작용하여 그 대상에 실제 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기하학적 원근법에 근거한 르네상스 이후 고전 회화론과 결별을 선언하는 인상과 회화론은 메를로 폰티가 말하는 지각방법과 일치할 나타난 것이다.¹⁷⁾

14)Ibid, 1998, p.192.

15)최계식, 자연의 현상학, 영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한국현상학회, 1998, p.307.

16)우리는 어떤 감각의 상태를 말할 때, 추운색, 딱딱한 색, 날카로운 소리, 가벼운 소리, 달콤한 소리 등을 말할 수 있다.

17)김형효, 메를로 폰티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p.193.

11)이종건,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1995, p.64.

12)Ibid, 1995, p.66.

13)류의근, 자연의 현상학, 메를로 폰티의 공간분석과 그 의미, 한국현상학회, 1998, p.183.

2.3. 건축의 현상학적 의미생성과 접근방식

(1) 물적 대상으로서 건축 해석의 한계

건축은 모더니즘이후 물적 대상에 대해서만 사고를 한정하였다. 그것은 주어진 대지에 건축이 어떤 체적으로 구축되는가가 중요하였다. 모더니즘의 사고에서 건축은 자연, 도시, 주변, 환경, 생활과의 관계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모더니즘의 기계적 패러다임에서 건축의 미적 체험은 사물의 외연적인 형태에만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형태만을 해석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¹⁸⁾ 이 한계의 근원이 된 사고는 서구의 구조주의와 상징적 전통의 바탕인 객관적 사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더니스트들이 건축의 구성을 요소들의 관계개념으로 파악한 것도 사물의 객관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 건축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태화에 초점을 둔 결과 본질적으로 인간의 감성은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건축의 현상적 지각체험

건축을 비롯한 각종 예술분야에서 현상학적 접근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결국, 인간의 체험적 사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건축의 한계 밖에 있는 언어를 유추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방법이 현대건축에서 현상학적 접근이 필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건축에서 '현상적 체험'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내포된 모든 것을 말한다. 즉, 시각적인 자극 및 인체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자극을 포함하며, 이차적으로는 물리적 자극의 내면에 배어있는 느낌, 상상력, 의미를 포함하고, 삼차적으로는 물리적 자극이 인간 존재와 관련되어 '인간-환경'이라는 전통적 이분법을 택하지 않고,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져 '융합하는 총체적 현상의 체험'을 의미한다.¹⁹⁾ 이것은 건축요소들의 한부분에서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요소들이 결합된 장(場)에서 현상학적 지각체험이 가능하다.

(3) 건축의 현상학적 의미생성

현상학적 신체는 의미생성을 위한 핵이며 따라서 건축의 의미문제도 어떻게 현상학적 신체를 불러내는가의 문제이다.²⁰⁾ 건축에서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은 인간의 습관적 신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이다. 즉, 근대건축 이후 객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된 건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개념에 따라 우리 신체는 익숙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습관적 신체를 극복하고 건축에 새로운 신체적 체험을 유도하여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현상학적 신체를 불러내기 위한 방법은 침묵의 과정이 필요하다. 의미의 출현은 침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침묵의 과정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또한 신체의 체험은 운동성을 수반하는데, 이 운동성은 눈의 시각적 체험과 몸의 운동성으로 이루어진다.

18) 박길룡, 현상으로서 건축, 공간, 1994. 1, p.23.

19) 임승빈, 도시에서의 현상적 체험, 공간, 1994. 1, p.51.

20) 이종건,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1995, p.212.

어진다. 건축의 의미생성을 위한 조건으로는 침묵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 신체의 운동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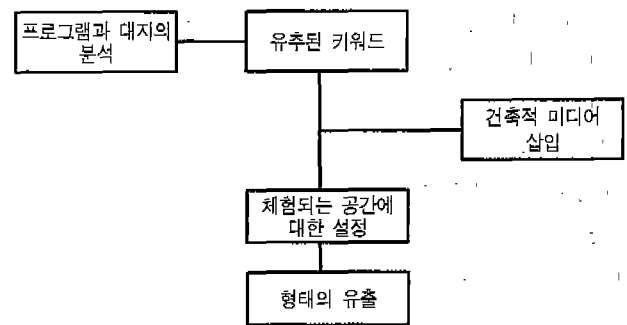
3. 스티븐 홀 건축에 나타난 현상학적 접근 방식

위에서 고찰한 현상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건축작업을 하는 현대 건축가로서 스티븐 홀의 작품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현상학적 경험에 대한 집착은 그의 건축에 대한 끊임없는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현상학적 접근태도는 그의 작품 속에서 두 가지 기본원칙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건물과 대지의 관계와 두 번째는 작품의 개념적인 차원을 인간의 입체적 경험과 통합하는 단계로 나타난다.²¹⁾ 이 과정은 건물과 대지를 통해 드러난 개념을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현상적 공간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신체의 현상학적 체험을 유발하기 위해 건축요소를 구성하는 사고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티븐 홀이 현상학적 체험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방법과 건축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1. 현상학적 프로세스와 지각의 해석

(1) 현상학적 프로세스

현상학적 프로세스는 프로그램과 대지의 번역, 즉 프로그램과 대지의 고유성에 대한 독립적 스터디 과정을 거쳐 유추된 키워드와 건축적 현상인 공간성의 접목을 위해서 추상에서 구상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말한다.²²⁾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현상인 공간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설정을 위해 건축의 매개물이 등장한다. 건축의 매개는 인간의 오감과 연계되어 구체적 공간의 형태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오감과 연계되는 건축의 미디어로서 불, 빛, 공기, 증기, 물, 흙 등이 추상에서 구상으로 실질적 매개역할을 담당하게 된다.²³⁾



현상학적 프로세스²⁴⁾

21) 조준호·박한규, 스티븐 홀 건축의 현상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 18권 제2호 1998년 10월 31일, p.504.

22) Ibid, 1997, p.62

23) 인간의 오감과 연관된 건축적 미디어의 예를 보면, 시각=불과 빛, 청각=공기, 후각=증기, 미각=물, 촉각=흙으로 연계한다.

(2) 투시도의 불완전함과 사물에 대한 재해석

현대도시와 건축에서 우리가 느끼는 공간은 더 이상 고전적인 투시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시도는 사물과 사물이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관계는 위치관계를 논리적이며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시각에 조화와 균형을 보여준다. 하지만 도시의 경관과 건물의 공간에서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사물의 관계 개념으로 제어된 요소들의 구성이라기보다 형태의 물성과 요소들이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지각은 도시 속에서 겹쳐진 사물과 공간, 공간이 투시도의 연속으로부터 발전하여 움직임의 각도와 속도에 따라 펼쳐지고 있다. 또한 기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산된 행위, 사건, 이벤트의 유발이 점점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근대 이후 건축이 인간의 행동을 객관화하는 것만을 우선시하고 건축에 대한 감성적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2. 현상학적 지각 체험을 이루는 요소와 구성방식

(1) 현상학적 지각 체험을 이루는 요소

건축에서 인간의 체험을 유발하는 요소는 일반적인 건축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요소의 개별적인 적용만으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통합되어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고, 그 장면이 새로운 지각체험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스티븐 홀이 말한 현상학적 지각체험 요소로는 빛과 그림자, 밤의 공간성, 시간의 지속과 지각, 물, 소리, 디테일, 비례와 스케일, 대지의 주변환경²⁴⁾을 들 수 있다.

(2) 현상학적 지각 요소의 구성방식

스티븐 홀은 현상학적 경험을 일으키는 요건으로서 사물과 장(場)의 융합을 지적했다. 그것은 건축적 형태의 물질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실행성을 넘어선 것으로서, 단지 사건, 사물, 행위의 장소가 아니라 만져져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중복된 공간, 재료, 그리고 디테일의 계속된 펼침에서 나타나는 것²⁵⁾이라고 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근경, 중경, 원경의 건축적인 통합과, 재료와 빛이 각각 분해되어서 지각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관과 객관의 융합에 의해 총체적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의도하는 현상학적 체험은 건축을 구성하는 사물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장(場)이 서로 얽혀서 새로운 의미를 유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지각체험을 통해 다양한 의미의 가능성을 창조한다.

3.3. 현상학적 체험요소로서 빛과 물의 성격

24) 김준성, *오관을 통한 체험적 사고 영역*,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논문집 제1집, 1997, p.62.

25) Steven Holl, *Questions of Perception*, A+U, 1994. 본 책에서 그가 말한 지각체험요소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26) Ibid, 1994, p.45

(1) 시간의 지속

시간에 대한 근대적인 개념은 선적이고 분리적인 것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미디어의 침투는 건축 공간의 지각에서 시간의 팽창으로 시간은 단절된 요소에서 연속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²⁷⁾ 그것은 고전의 투시도적 공간개념에서 표현된 단절된 시간이 아닌 동일시간의 불완전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에서 시간의 확장은 사물을 지각하는 기반이 되며, 새로운 지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즉, 밤과 낮의 변화, 기후조건 변화, 계절의 변화, 오랜 시간의 경과와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 내에 있는 사물의 의미를 기존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게 한다. 그것은 언어의 표현력을 초월하며 지각을 통한 해석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시간의 확장은 건축의 지각체험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기반이 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2) 빛과 색의 감성적 차원 회복

자연적인 빛은 도시와 건축의 형태와 공간을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그것은 건물을 눈으로 보거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빛과 그림자를 구성하여 사물을 지각하게 한다. 빛은 건축의 형태와 공간구조에 영향을 주며, 표현의 심도에 영향을 준다. 공간의 지각은 빛의 방향과 방위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또한 건축의 물성을 표현적 물상으로 만드는 주요한 수단인 것이다. 이것은 빛으로 만들어진 형상과 그림자로서, 항상 우발적이고도 움직임이 있는 빛의 속성 때문이다.²⁸⁾ 이러한 빛의 성격은 빛을 받는 쪽은 정태적이지만 비쳐지는 각도, 광량, 조사 조건에 따라 어떤 현상적 일루전을 만든다. 여기서 빛은 물리적인 빛의 성격이 아니라 빛이 사물과 공간에서 중요한 시각적 체험 요소가 된다. 마찬가지로 색에 대한 지각도 빛 파장의 계산이나 시각의 물리적 행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경험 속에서 느낀 색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⁹⁾ 색 또한 빛의 다양한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지각을 통해 체험된다. 그러므로 빛과 색은 시간성을 가진 건축공간의 중요한 표현요소이며 새로운 이미지의 전달수단으로 작용한다.

(3) 신체의 체험요소로서 물의 의미 확장

물의 건축적 실체는 그 자체만으로 표현력이 있지만, 다른 대상과 결합하면서 또 다른 시각적 현상을 만든다.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본래의 순수한 요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과학과 경험의 특성사이에 존재하는 물의 균형적 감각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상황과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스티븐 홀은 건축공간 속에서 물의 반사력, 공간의 역

27) Ibid, 1994, p.74

28) 박길룡, *현상으로서 건축, 공간*, 1994. 1, p.34.

29) Steven Holl, *Questions of Perception*, A+U, 1994, p.58.

전과 광선의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적 렌즈'로서 물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³⁰⁾ 그것은 물의 심리적인 힘이 과학적 굴절현상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기능적인 요소나 시각적 요소가 아닌, 신체적 체험을 유도하는 장치이며, 물의 감성적인 성질에 더 관심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물이 시간, 주변상황, 기후조건과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될 때 더욱더 큰 체험요소가 될 수 있다.

4. 현상학적 빛과 물의 공간 작용

분석대상은 스티븐 홀의 작품 중에서 건축 공간에서 빛과 물이 지각체험을 위한 요소로서 사용되었고, 두 요소가 동시에

<표 1> 스티븐 홀 건축작품에서 현상적 빛과 물의 공간작용에 대한 분석

순서	작품명	설계년도	건축용도	건물 전경	주요 도면	현상학적 공간 체험요소				비고
						위치		작용 방식		
						빛	물	빛	물	
1	Fukuhoka Housing	1989/1991	집합 주거			내부공간 외부공간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빛의 변화 ● 물의 반사를 통해 내부공간으로 유입	● 태양광을 반사하여 건물내부로 빛 유입 ● 건물과 주변환경을 비추는 거울		
2	Palazzo del Cinema	1990	영화관			내부공간 외부공간	● 내부공간에 시간의 흐름 인식 ● 건물외 내·외부를 관통하는 빛을 통한 시간 인식 ● 내부공간에 반사된 빛, 그림자와 차이를 통해 공간인식	● 물성 변화의 시각적 체험	계획안	
3	Implosion Villa	1992	주택			내부공간 외부공간	● 물의 반사를 통해 실내로 유입	● 빛을 반사하여 내부공간을 비춤 ● 물의 시각적 현상 보여줌	계획안	
4	Helsinki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3/1998	미술관			내부공간 외부공간	● 내부전시공간을 비추기 위한 빛 유입 ● 다양한 빛을 건물 외부로 발산	● 건물과 주변환경을 비추는 거울 ● 물성변화의 신체적 체험		
5	Makuhari Housing	1992/1996	집합 주택			외부공간	● 건물내부에 들어오는 다양한 빛의 성격 ● 외장재료의 변화 ● 내부공간의 질감 변화	● 건물과 주변환경을 비추는 거울 ● 자연현상에 따른 동적인 모습 보여줌		
6	Addition to Cranbrook Institute of Science	1992/1995	연구소			내부공간 외부공간	● 시간의 변화에 따른 빛의 다양한 성격 유입 ● 다양한 빛을 건물외부로 발산	● 고체, 액체, 기체의 물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줌 ● 신체적 체험		
7	Chapel of St. Ignatius	1994/1997	성당			내부공간 외부공간	● 내부공간에 다양한 빛의 성격 유입 ● 공간내부에 색채감 부여 ● 밤의 시간성 표현 ● 내부공간의 질감 변화	● 건물과 주변환경을 비추는 거울 ● 물성변화의 신체적 체험		
8	Samsung Project	1995	주택			외부공간	● 물의 반사를 유도 내부공간을 비춤 ● 시간에 따른 다양한 빛의 변화 지각	● 태양광을 반사하여 건물내부로 빛 유입 ● 물의 다양한 동적인 현상 표현 ● 건물과 주변환경을 비추는 거울	계획안	

30)Steven Holl, Questions of Perception, A+U, 1994, p.80.

사용된 작품을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계획단계에서 건축공간에 체험적 영역을 만들기 위해 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된 작품뿐만 아니라 계획안도 포함한다.

4.1. 시간의 연속성

(1) 체험의 장(場)을 이루는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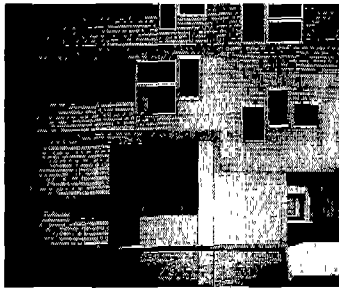
분석대상 작품에서 나타난 공간의 작용요소는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연속된 시간성을 바탕으로 표현되었다. 실내공간에서는, 하루 동안의 변화를 시각적 체험으로 지각하게 했고, 외부공간에서는 신체의 운동성을 통해 자연환경의 변화를 지각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시간의 연속성은 신체가 지각하기 위한 공간체험의 장(場)을 만들고, 또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며 시각적·신체적 체험을 가능하게 했다.
(2) 물성(物性) 변화 유도

스티븐 홀 건축에서 시간의 연속성은 건물을 표현하는 재료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각적, 촉각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외장재는 외부환경에 노출되지만, 자연스럽게 표피가 변하면서 재료에 시간의 연속성이 느껴지게 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재료와 변하지 않는 재료를 병치해 두어서, 두 재료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하였다. 또한, 성 이그나티우스 성당(Chapel of St. Ignatius)의 내부공간에서는 재료의 질감은 빛의 강도와 변화에 따라 달라지면서 시각을 통해 다양한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태양광이 실내로 유입될 때 빛을 받은 부분의 질감은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시각적으로 그 질감이 느껴지도록 한 것이다. 시간의 연속성은 물성을 변화시켜 시각적·신체적 체험을 유도하는 매개체로서 역할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의 연속성은 건축을 둘러싼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건축자체에도 변화하게 하면서 현상학적·체험을 유도하였다.

4.2. 빛의 일루전(illusion)효과

(1) 빛의 물리적 성격의 시각화



<그림 1> Fukuhoka Housing

건물의 내부공간에서 빛과 그림자의 강한 대비와 빛의 변화를 통해 현상학적 시각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팔라쵸 델 시네마(Palazzo del Cinema)에서는 물의 일렁임을 통해 반사된 빛이 건물의 중정을 비추거나 내부공간에 유입될 때, 그 빛은 동적인 성격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따라 태양광의 강도와 빛의 색이 변하는 효과를 여기에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후쿠호카 주거단지(Fukuhoka Housing)에서는 물이 움직일 때 반사된 빛은 내부공간으로 들어가서 실내 천정이나 벽의 표면을 비추어서 실내공간을 밝게 할 뿐 아니라 움직이는 빛으로 공간에 동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건물 외피에 물에 반사된 빛이 반영되어 일시적으로 건물의 재질감을 모호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빛의 일루전 현상을 건물내부와 외관에 표현된 빛의 물리적 성질을 시각적 체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 프로젝트(Samsung Project)에서도 같은 성격의 빛이 사용되고 있다.

(2) 내부공간의 변화하는 색채

성 이그나티우스 성당(Chapel of St. Ignatius)의 내부공간은 빛의 변화에 따라 성당의 색채도 변화하고 있다. 내부공간은 태양광의 변화에 따라 색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의도적인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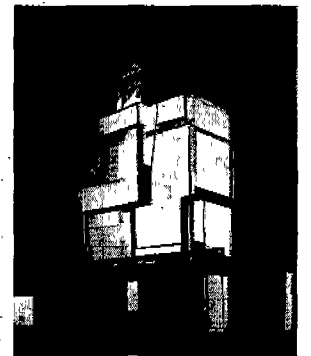


<그림 2> Interior of the Court House in Makuhari Housing

가 사용되었다. 그 장치는 빛이 실내로 유입될 때 색이 칠해진 반사판을 통해 실내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빛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반사된 색이 유입되었다. 후쿠호카 주거단지(Fukuhoka Housing)의 주거동과 마쿠하리 주거단지(Makuhari Housing)의 코트 하우스(Court House)에서 내부공간의 색채도 태양 빛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 다른 느낌을 지각할 수 있게 만들어 졌다. 이러한 작용은 색도 상황에 따라서 단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체험자의 심상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파악되는 것으로서 색의 현상학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료의 변화를 이용한 다양한 빛의 발산

헬싱키 현대 미술관(Helsinki Museum of Contemporary Art), 크랜부룩 과학연구소 증축(Addition to Cranbrook Institute of Science)과 성 이그나티우스 성당(Chapel of St. Ignatius)은 낮뿐만 아니라 밤을 고려해서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낮 동안은 건물의 양피감만 인식되지만, 밤에는 유리를 통해 발산되는 빛으로 건물이 인식되는 성질을 적용하였다. 이 건물들은 외부에서 인식하는 빛은, 움직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도록 장치되었다. 그것은 같은 빛이라도 유리의 각도와 재질을 다양하게 해서 외부에서는 다양하게 발산되는 빛을 볼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그림 3> Addition to Cranbrook Institute of Science

4.3. 현상적 렌즈(lens)로서 물

(1) 빛을 반사하는 매개체

물은 내부공간에 빛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물의 반사적 성질을 이용하여 기능적인 작용을 한다. 위의 분석에서 물의 반사력을 이용하여 빛을 직접 실내공간으로 유입시키거나, 건물의 벽면에 반사하여, 어두워질 수 있는 공간을 밝게 할 수 있도록 빛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흐르는 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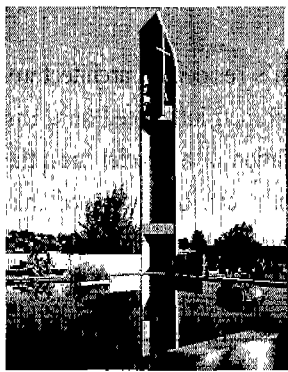


<그림 4> Palazzo del Cinema

나 고요한 물, 파도 등과 같이 물의 다양한 상태를 매개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쿠호카 주거단지(Fukuhoka Housing)와 삼성 프로젝트(Samsung Project)에서 물의 반사력을 이용하여 빛을 건물 내부를 밝게 하고 외벽을 비추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팔라조 델 시네마(Palazzo del Cinema)에서는 움직이는 바닷물은 태양광을 반사시켜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서 빛의 시각적 운동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2) 물성(物性) 변화의 신체적 체험

물의 신체적 체험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스티븐 홀은 현상학적 체험을 일으키려고 건물의 외부공간에 수공간을 만들었으며, 물 자체가 가진 다양한 물성을 체험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각적 체험을 유발하려고 물의 성격 중에서 동적인 움직임을 시각적 체험으로 유도하였다.



<그림 5> Chapel of St. Ignatius

후쿠호카 주거단지(Fukuhoka Housing)와 마쿠하리 주거단지(Makuhari Housing)의 얇은 수공간에서 평정한 물의 시각적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팔라조 델 시네마(Palazzo del Cinema)의 물은 바닷물을 건물 내부로 끌어

들여 동적인 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 방법은, 물의 다양한 물성(物性)을 사람이 직접 체험하면서 신체가 현상학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크랜부룩 과학연구소 증축(Addition to Cranbrook Institute of Science)에서 물은 증기, 액체, 고체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신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그의 작품에서 물은 다양한 현상을 이용하여 신체적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3) 주변상황을 비추는 거울

물의 현상학적 시각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물의 반사 성질을 이용하여 주변의 상황을 공간 속에 담아서 관찰자가 시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의 성격은 그의 작품 전체에서 나타난다. 물의 움직임이 없을 때, 물에 비친 주변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물은 주변환경을 비출 수 있는 크기를 가지면서 건물 외부공간의 수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물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주변상황과 자연조건, 즉 자연의 변화와 경관, 주변지역 등을 시각하게 했다.

5. 결론

이상으로 스티븐 홀의 작품에 나타난 현상학적 시각체험요소인 빛과 물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스티븐 홀의 건축에서 빛과 물은 단지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

고 여러 다른 지각적 요소들과 함께 장(場)을 형성하여 인간에게 새로운 지각 체험을 일으키는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건축 공간에서 현상학적 빛과 물의 작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상학적 시각체험에서 시간은 연속된 것이며 지각체험을 일으키는 기반요소로서 공간의 장(場)을 형성했다. 이러한 시간의 연속성은 하루의 변화, 밤과 낮의 변화뿐만 아니라 계절의 변화까지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빛의 변화로 내부공간의 질감과 외부의 표피를 변화시켜 다양한 지각 체험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의 지각에서 연속된 시간의 흐름은 건축을 둘러싼 외부환경뿐만 아니라 건물자체도 포함하며, 지각체험을 이루는 기반을 형성한다.

둘째, 현상학적 요소로서 빛의 일루전 효과는 공간 속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였다. 빛의 물리적인 성격이 시각적으로 사용되었고, 내부공간에서 색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또한 밤에는 재료의 변화로 건물외부로 다양한 빛을 발산시켰다. 이것은 빛과 색이 공간 속에서 고정된 물리적 성질이 아닌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시각적 체험요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현상적 렌즈로서 물은 건축공간에서 기능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신체적 체험요소로서 작용했다. 물은 건물의 외부공간에 사용되어, 수공간으로서 빛을 내부공간에 삽입하여 실내를 밝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했다. 그리고 물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신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부공간에서 물은 주변상황을 비추는 거울로서, 시간과 공간을 담는 중요한 심상적 요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준성, 오판을 통한 체험적 사고의 영역, 경기대학교 논문집, NO.1, 1997.
2. 김형호, 메를로 폰티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 1996.
3. 박길용, 현상으로서의 예술, 공간, 1994.1.
4. 박상규, 미학과 현상학, 문예출판사, 1991.
5. 이규목,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1호 통권 15호, 1988.2.
6. 이선정, 현상학적 체험을 통한 건축의 의미생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7. 이종건,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1995.
8. 조준호·박상규, 스티븐 홀 건축의 현상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8권 제2호, 1998.10.
9. 홍경실 역, 메를로 폰티, 지성의 삶, 1994.
10. Alejandro Zaera Polo, Steven Holl, El Croquis, 1996.
11. C3Architect, Steven Holl, 1999.
12. GA Document extra06, Steven Holl, 1996.
13. Steven Holl, Anchoring, 태림출판사, 1993.
14. Steven Holl, Juhani Pallasmaa, Alberto Pérez-Gómez, Questions of Perception, A+U, 1994.
15. Van de Van, 정진원, 고성룡 역, Space in Architecture, 기문당, 1990.

<집수 : 2001. 3. 30>